



기생충학회 참관기 ■

83년도 춘계 학술대회

■ 安 泳 謙

대한기생충학회는 정기적으로 연 2회(춘추)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매년 춘계에는 지방에서 오전중에 제한된 연제수(대학별 1연제)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데 1983년도는 충남 아산군 신장면 신창리에 위치한 순천향대학에서 열렸다. 순천향대학은 신설대학으로 1978년 순천향의과대학으로 설립되었고 1980년에 순천향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면서 의학부

를 비롯 이학부, 문학부 및 상경부를 두고 입학학생은 572명(졸업정원 440명)으로 지방대학으로서 규모를 더해가는 발전도상대학으로 건물들이 새로이 신축되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4월29일(금) 봄날씨임에도 기온은 10~12℃ 정도로 낮았고 서해 바닷가에서 서풍이 세계 불어 봄차림으로는 추운날씨였다. 9시30분부터



안 영경 교수

접수등록을 마치고 9시50분부터 예정대로 학회장의 개회사와 순천향대학 의학부장 강상균교수의 환영사에이어 연제가 발표되었다.

교통이 좀 불편한 편이었으나 예년과 같이 참석회원 전원은 시간내에 접수를 마쳤고 전국각지에서 60여명의 회원이 모였다.

이번 발표회에는 13연제와 특별강연이 있었는데 연제는 원충류 4, 흡충류 7, 조충류 1, 감염률의 변동추세 분석 1 이었다. 연제순으로 애독자를 위하여 그내용(연제의 기생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을 살펴보면……

원충류(原虫類)에서는 ①『자유생활 아메바의 병원성 변화(임경일, 한양·연세)』-자연계의 물속에 살고있는 수많은 아메바 종류중 Naegleria속, Acanthamoeba속등은 사람이 수영을 할때 쿡구멍(비강점막)을 통하여 뇌로 들어가 뇌세포내에서 증식하여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증세를 일으킬수 있는데이 자유생활 아메바로 동물실험을 한 내용이다.

즉 6년이상 실험실에서 배양하던 아메바보다는 이 아메바를 동물에 인위적으로 감염시켜서 동물체대

에서 증식을 반복한 아메바는 시험관내 배양아메바보다 병원성이 높다는 실험결과이다.

무엇보다도 냇가의 물속에 사는 아메바도 인체에 들어오면 무서운 뇌수막염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②『만성설사 환자에서의 장내아메바 감염상태(옥미선, 경북)』-1979년부터 2년간 만성적인 설사와 이질양상으로 병원을 찾는 2,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질(痢疾)아메바 감염을 조사한 바 낭자(囊子, cyst)배출율이 54.6%였다는 조사보고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도 대구지방을 중심으로한 주민들은 아메바성 설사환자가 많음을 말해주는 결과이고 특히 계절별로는 하절이 심하다고 하였으며 1979년보다는 1981년이 높을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음료수등을 통한 여름에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는것을 알수있다.

③『소독제에 대한 Giardia 원충의 저항력 연구(송종술, 연세)』- Giardia는 한국의 어린이에 많이 감염되는 원충의 하나로 지방흡수장애와 설사등을 주증세로 하는 원충이다. 감염자는 대변과 같이 10「마이크론」크기의 낭자를 배출하는데 파리,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에 의하여 전파된다.

이렇게 외계에 배출된 낭자(감염

원이 되는)의 저항력을 연구 관찰할려면 낭자로부터 영양형으로의 시험관내 배양이 가능해야 한다. 이 연제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배양에 성공한 실예이다.

많은 약제중 수도물에 사용되는 「염소소독제」 4 ppm에서 60분, 8 ppm에서 30분동안 접촉시켰을때 사멸됨을 관찰했다.

즉 낭자를 필요한 소독제에 작용시키고 배양하여 배지내에서 탈낭(脫囊)여부 관찰로 생사를 판별한 실험이다.

④ 『Kala-azar의 1예 (홍성대, 서울)』-Kala-azar는열대성원충 「도노반 리슈마니아」 (Leishmania donovani) 감염으로 생기는 「내장리슈마니아증」의 하나이다.

분포는 중공을 비롯한 동부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등이며 sand fly라는 모기보다도 아주작은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며 비장 및 간장종대, 기능저하, 영양장애 등이 오며, 피부는 흑색으로 변하며 부종을 일으킨다.

사망율은 비교적 높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생충성 열대질환이나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로 반입되는 질환의 하나가 되고있다. 잠복 기간은 일정치 않아 수개월간이 보통이나 1년간도 될수있어 귀국후 국내에서 발병할수도 있다. 앞으로 취업, 여행 등이 증가됨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

로 연자는 보고있다.

이번보고된 증에는 건설기능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1년간 체류한후 귀국한 26세의 남자로 귀국 10개월후에 발병한 예였다.

⑤ 『Fibricola seoulensis의 숙주특이성 (홍성중, 서울)』-F. seoulensis는 1964년 徐등에 의해 서울의 집쥐에서 발견하고 명명한 신종의 장흡충(성충은 2mm미만)으로 “쥐주걱흡충”이라 부른다.

제 2중간 숙주는 개구리(뱀은 운반숙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체감염에는 역시 徐등(1982)에 의해 뱀을 생식한 26세의 남자에서 보고되었다.

인체감염시 주중세는 상복부 불쾌감, 잦은 설사등이다. 연자등은 뱀에 형성된 피낭유충을 쥐, 개, 고양이, 토끼등에 시식감염시켜 동물별 발육상을 관찰하고 쥐(흰쥐와생쥐)가 호적숙주가 될것이라 지적하였고 주로 기생부위는 십이지장에 분포한다 하였다.

⑥ 『요꼬가와 흡충에 감염된 고양이 소장의 배세포변화 (조승열, 중앙)』-요꼬가와흡충은 한국에 흔한 장흡충으로 잘 알려져있는데 다수감염(多數感染)으로 장에 염증을 일으켰을때 설사하는 증세를 나타낸다.

연자는 이렇게 나타나는 설사 및 액상의 장내용물 형성과 배세포(goblet cell)의 변화양상과의 관련성을 조직표본을 작성하여 보고, 요꼬

가와흡충 감염으로 야기되는 장상 피 세포의 파괴로 배세포의 감소현상이 초래함을 관찰하였다.

⑦ 『Heterophyes heterophyes nocens의 인체감염 1례(채종일, 국군서울지구병원)』—H. heterophyes(이형흡충)는 송어를 회로 생식할때 감염되는것으로 알려진 장흡충의 하나이다.

H. heterophyes와 H. heterophyes nocens의 차이는 성충만으로 생식반(生殖盤, Heterophyes속의 특징)의 gonotyl의 rodlet수, 맹장으로 끝나는 장의 말단부등의 차이를 들고있으나 이는 학술적으로 형태학적인 차이이고 일반적으로 이형 흡충으로 통칭되고 있다.

이연제는 인체감염의 두번째 확인 예이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중요하게 제기될것으로 믿어지는 문제점은 H. heterophyes nocens의 충란의 형태가 간흡충과 꼭같다는 점이다.

간흡충감염자는 여러 담수어종을 회로 먹었기때문에 감염되었다면, 회로 먹기에 적합한 송어도 생식하여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또 감염여부는 대변속에서 배출되는 충란의 감별에 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간흡충과 이형흡충의 감별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다. 또한 양 흡충 간에는 증세도 크게 다르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충란검사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정확한 판별

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형흡충감염, 또는 중복감염을 간흡충감염으로 잘못 판단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앞으로 분변 검사를 통하여 쉽게 충란이 감별될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었으면 좋겠다. 아주 재미있는 연제였다. 충체의 사진도 깨끗하였고, 자료의 준비도 예년과 같이 충실하였음을 부연해 두고싶다.

그외도 ⑧ 『간흡충 농후유행지(김해시)에 있어서의 역학적 추이(이준상, 고려)』에서는 1971년도보다 1981년도에는 충란검출 및 감염농도의 저하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특히 9세미만 아동의 감소현상이 현저하다 하였다.

⑨ 『폐흡충 분비배설물에 의한 ELISA시험(김동찬, 보건원)』에서는 성충의 분비배설물항원으로 ELISA 효소진단법에 의한 폐흡충 진단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⑩ 『폐흡충에 대한 Praziquantel의 영향에 관한 전자현미경적 관찰(유재을, 가톨릭)』에서는 간흡충치료제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Praziquantel(biltricide)이 폐흡충 치료에도 유효한데 그살충기 전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이다. 용량은 25mg/kg, 4시간 간격으로 3회 투여하였다. 약제에 의한 영향을 심하게 받는 부위는 충체의 표피에 있는 극피(가시)와 감각유두가 있는 기저부의 표피가 수포상으로 비루돌

출되면서 분리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⑪ 『경북 안동군 폐흡충 침윤지에서서의 폐흡충중간숙주 조사(주종윤, 경북)』에서는 안동군 3개지역 계곡의 “다슬기”(제 ① 중간숙주)에서 유충감염을 검출할수 없었고 “가재”(제 2 중간숙주)의 서식은 아주 줄었고, 유충감염도 저율이라 하였다.

⑫ 『인체기생 광절열두조충의 1례(송수복, 부산)』- 광절열두조충은 송어를 회로 먹을때 감염되는 조충(긴촌충)으로 길이는 10m가 되는 것도 있다. 사람이 숙주이나 한국에서는 드물게 감염되는 것으로 증례 보고가 되고 있다. 이환자도 설사, 하부부통의 증세를 나타냈는데 투약으로 구충된 예이다.

⑬ 『학생기생충감염의 경년적 변동에 관한 통계학적 분석(전진호, 부산)』-이연제는 1973년~1982 년사이의 한국기생충박멸협회의 조사자료로서 감염율의 저하추세를 분석한 것으로 지금과같은 추세로 지속될경우 전국적으로 2009년에는 회충감염이 없어질 것이라 추정 보고 하였다.

연제발표도중 네번째연제가 끝난 후 10시40분부터 40분간 『우리나라에 있어서 식물선충의 현황』이란 제목으로 나용준교수(서울농대)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한국에 있어서 식물선충류연구의 연혁을 소개하고 1961년초부터 한국인학자에 의한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성충(0.2 mm~4 mm정도의 크기)은 45種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였다.

주로 식물선충류의 연구는 농작 식물에 극한된 것으로 ① 시비와 선충류의 분포변화 ② 작물에 대한 저항성 실험비교 ③ 살충제에 의한 선충류의 방제등 응용면에서의 실험연구들이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제성 작물의 철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삼선충, 연초충, 맥아선충, 마늘, 벼, 콩, 딸기재배에 관련선충및 화훼선충등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방면의 학자가 태부족으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오후 1시20분 학회측에서 순천향대학 교직원식당에 마련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순천향대학의 스쿨버스를 이용 “아산만”관광길에 올랐다.

끝으로 학회를 준비하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총무부, 학술부에 회원의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필자=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기생충학교수〉

